



무주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

무주소방서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수난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수난구조장비 운용능력 강화 등 수난구조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수상인명 구조법, 수난구조 장비 사용법 숙지 훈련, 대원별 수준향상 훈련, 비상 시 대처요령 등이다.

이정열 119구조대장은 “수난사고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구조활동은 구조대원들의 숙달된 능력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빠른적인 훈련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실시한다.

이 제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파인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복합건물을 등이다.

따라서 위 위법 사항을 목격하면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 위법으로 판정되면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4일 순창소방서와 합동으로 청사 내 화재 발생 대비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2023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순창경찰서 경찰서 자위소방대 및 순창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가상 화재발생 상황을 연출해 대피훈련과 더불어 화재진압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초기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난 요령과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 요령 교육 실시,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처능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직원들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 부안읍 승격 제80주년 역사 되새겨

### 부안읍민의 날 제3회 읍민대동한마당 성황리 개최

부안군 부안읍 승격 제80주년 기념 부안읍민의 날 제3회 읍민대동한마당이 지난 1일 부안해뜰마루에서 부안읍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만)의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 김슬지 전북도의원 등 많은 내·외빈과 5,000여 명의 읍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의 유쾌한 공연을 통해 성대하게 막을 올렸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개회선언, 기념사, 내빈 축사와 함께 부안읍 승격 제80주년을 기념하는 시루떡 커텁 퍼포먼스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부안읍 출신의 국민가수 진성 씨가 부안읍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헌금하는 한편 열창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의 풍성한 경품 추첨을 끝으로 대동한마당 행사는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되었다.



김종만 추진위원장은 “추석 명절에도 찾아오신 읍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80년 역사의 부안읍민으로서 자긍심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창조 부안읍장은 “행사 준비와 참여에 모두 하나가 되었다”며, “오늘 화합한 읍민의 저력을 부안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신규임용자 실무 수습 첫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일부터 11월 2일까지 5주간 3명의 신규임용자들이 소재실 서장과 안전과 책임을 다짐하고 소방관서 실습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하고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배치 전 화재·구조·구급·행정 등 현장 적응 대응능력 및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작년에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인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들이다.

이들은 평일 일근 근무를 하면서 △관찰보조, 수관 전개·수거, 진회정리 △들것 보조, 생활안전구조 등 위해요소 제거 활동 △소방 특별조사 출장 등 각 관서의 행정부서 견학 및 실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을 축하한다”며, “이번 실습이 앞으로의 현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추석 기간 남원 산내면에 따뜻한 손길 이어져

남원시 산내면은 추석 기간 면민 김순남씨(입석리)가 성금 100만원을, 삼화선원(주지 여강스님)에서 백미 10kg 4포(125만원 상당), 지리산황치마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양재혁)에서 유기농 누룽지 270박스(19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산내면은 지난 9월 18일부터 추석 기간까지를 취약계층 집중 살핌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70여 가구를 면장 등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위로하고 기부금품을 전달했다.

한편 양인환 산내면장은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관내 취약 가구들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면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꿈꿔하고 춤추하게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